

한라산에 구상나무 묘목 1000그루 심는다

19일 선작지왓 일대에서
복원연구 위한 시험식재
제주조릿대 경쟁관계 고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연구의 일환으로 자생지내 종복원 연구를 위한 어린나무(묘목) 시험식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험식재는 오는 19일 한라산 영실등산로 선작지왓 일대에서 이뤄지며 한라산연구부에서 지난 7년 동안 자체 증식해 양묘한 구상나무 1000본을 식재한다. 시험식재 후에는 생존율 및 생육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최종적으로 구상나무 종 복원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다.

이번 시험식재 장소 선정은 한라산 국립공원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제주조릿대와 경쟁관계를 고려해 이뤄졌으며 구상나무가 쇠퇴한 지역 중에서 제주조릿대가 밀생한 곳을 선정했다. 이는 제주조릿대의 확산에 의한 구상나무 어린나무의 발생과 생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복원방안연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라산연구부는 구상나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연구의 일환으로 19일 한라산 영실등산로 선작지왓 일대에서 자생지 내 종복원 연구 위한 어린나무(묘목) 시험식재를 추진한다.

시험식재를 위해 도양혜손방지 등 천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생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멸종 처리되고 부식 가능한 친환경적인 특수 식재용기를 제작하고 구상나무 묘를 이식해 적응시키는 과정과 함께 묘목 식재에 따른 대상지의 환경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식재터파기를 하지않고 미세지형적인 환경특성을 고려한 식재기법연구 등을 준비해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최근 10년 동안 구상나무가 대량 고사돼 숲이 쇠퇴한 영실등산로 해발 1630m일대에 시험 식재된 구상나무는 현재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며서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적응해 나

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시험식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만큼 국제적으로 보전가치를 지닌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방안 마련과 보전 필요성을 알리면서 도민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태풍 취약’ 한림항 보강공사 추진

2021년까지 242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올해 8월부터 2021년까지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림항은 지난 1968년 연안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개발 및 확장이 이뤄져 왔으나 북방파제인 경우 시설 노후 및 시설 미비로 태풍에 취약해 월파로 인한 항내 정은 유치가 어려워 어선

및 화물선 접안은 물론 안전한 항내 운항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 어항구 어선 수리소 서쪽과 상항구 선화장도 어선 및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간조시 어선은 물론 2000t급 화물선 운항에 지장을 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북방파제(L=1578m)에 대해 TTP보강(L=537m)과 상치 콘크리트(L=896m·높이 1m~2.5m)를 보강하고 수심 확보가 되지 않은 어항구 서쪽과 상항구 선화장 주변에

대해서는 어선과 화물선 2000t급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공사를 시행해 적정한 수심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태풍 시 월파를 차단함으로써 항내 정은 확보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은 물론 항내 운항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항만 운영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선박 접안으로 어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그자

제주지방법원 주변 일방통행로 시범 운영

23일부터 순차적 실시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제주지방법원 주변 일방통행 16개로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6년 8월 교통환경이 취약한 법원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사업비 8억원을 투입, 지난해 12월부터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함께 일방통행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8월 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보행로 확충, 속도저감시설·역주행 방지 화단시설 설치, 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역주민과 도로이용자들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일방통행 시범운영을 시작

할 예정이며 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또한 일방통행로 본격 시행 후에도 초기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얼마간의 적응 기간이 지나면 교통이 더 원활해지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제주도, 폭염 대비 양식장 고수온 대응 상황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여름철 표층수온이 평년 대비 0.5~1.5℃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6일부터 양식분야 고수온 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수온도가 28℃이상의 고수온기에 접어들면 양식어류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대항하는 면역력 저하로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고수온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량 폐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제주도는 고수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와 행정시, 양식수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고수온 대응 TP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양식어가는 고수온기를 대비해 양식장 시설을 정비하고 사육생물의 면역력을 강화해 양식생물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지하해수가 미개발된 제주 서부지역 육상양식장에서는 고수온으로 사육중인 어패류가 스트레스로 먹이량이 감소하고 질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대로그자

제주 국회의원 3인 후반기 상임위 확정

강창일 행안위-오영훈 농해수위-위성곤 산자위
오영훈, 예결위원 선임… 국비 확보 역할 기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제주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다룰 상임위에 각각 배정돼 제주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강창일 의원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4선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배정됐다. 강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소관기관 중에는 행정안전부산하단체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이 포함된다.

강 의원은 16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비롯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달라는 당의 요구로 행안위에 배정됐다”며 “역사문제와 지방자치 관련 현안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오 의원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포함돼 내

년 제주 국비 확보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농해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1차 산업 진흥과 농경제체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농업을 고민하고, 해양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에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됐다. 위 의원은 청년창업과 제주미래성장동력 발굴, 제주 전력수급 문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위 의원은 “이제는 사무실이 없어도 노트북 하나로 있으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들이 제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제주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부미번기자 bu8385@ihalla.com

주민자치대학 제2기 과정 이달 31일까지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대학 제2기 과정 수강생을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자치대학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간 교육운영 위탁 협약에 따라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주민자치대학 과정을 개설해 전반기에 제1기를 운영했으며 오는 8월 17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제2기 수강생은 총 6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정원의 50%는 현 주민자치위원 희망자를 선발하고 모집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사회적 약자(장애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주거주 외국인), 여성, 청년지원자를 우대 선발할 예정이다.

고대로그자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해설사 심화과정 운영

서귀포시는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을 위한 해설사 심화과정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건축문화기행은 세계적인 건축가 건축물 및 제주전통 건축물 등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자원을 활용해 서귀포의 자연, 삶, 멋, 문화를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여행 프로젝트이다.

서귀포건축문화기행 해설사 심화과정은 지난해 진행한 기초과정의 연장선으로서 오는 8월 18일부터 주말을 활용해 총 58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http://culture.seogwip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자선·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자선·질서·화합

4대 사회약근절을 위한 효자효부시상식 및 회원단합 한마음대회

초록빛 가득한 성하의 계절에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4대 사회약 근절을 위한 효자효부 시상식 및 회원단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오니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8. 07. 21(토) 오전 9시

장소 88생활체육관 (서귀포시)

* 참석대상 바르게살기운동 전 회원

* 주최·주관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

·문의처: ☎ 064) 762-1839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회장 오도일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 전문건설업, 방수공사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그랜드보청기

연중무휴 상담 및 방문

여름 시즌 제주도내 배터리 최저가 판매

25,000원 → 15,000원에 판매

다양한 행사에 상품을 출전 전화 주십시오~

보상판매 서비스

1+1(원플러스원 행사)

방문고객 기념품 증정

무료청력검사

보청기 A/S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